

작은 교회를 잇는 다리, ‘위 브릿지’ 사역에 대한 관심

팬데믹 상흔 속에서 시작된 연대 플랫폼 역할
재정 후원과 컨퍼런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색
2025년 제4회 컨퍼런스 앞두고 본질과 기준 다지기

미주 기독일보 (대표 이인규 목사)가 추진하는 ‘위 브릿지(We Bridge)’는 작은 교회가 고립되지 않도록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역이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현장에서 출발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와 사모가 소진돼 가는 현실을 목격한 뒤에야 가능한 판단이었다. 무엇이 급한지 분명했다. 위기는 진단보다 연결을, 비판보다 동행을 요구했다.

그때부터 위 브릿지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목표로 걸음을 뒀으며 사역의 시작은 분명하다. 2019년 팬데믹으로 미국 전역에서 예배 공간이 닫혔다. 재정 흐름이 막히고 목회 현장은 공백이 커졌다. 작은 교회는 더 취약했다. 본지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을 논하기 전에 서로를 잇는 다리를 놓

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뢰가 먼저였다. ‘누가’와 ‘무엇을’보다 ‘왜’와 ‘어떻게’가 급했다. 그 ‘왜’는 작은 교회가 지역 복음 생태계의 모세혈관이라는 믿음이었다. 그 ‘어떻게’는 현금성 지원과 관계망 회복이었다. 첫 걸음은 재정 후원이었다. 2023년 1월부터 매월 500달러씩 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표적은 재정난으로 사역이 흔들리는 소형 교회다.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다. “혼자가 아니다.” 이 후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사역의 연속성을 붙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도움을 받는 교회만 변하는 것도 아니다. 나눔에 참여하는 교회와 기업, 개인의 시선도 바뀐다. 지역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다리의 첫 기둥은 그렇게



세워졌다.

두 번째 축은 컨퍼런스다. 대상은 개척 10년 미만의 목회자와 사모이며, 컨퍼런스의 주제는 현장성이 핵심이다. 영적 재충전과 실제 운영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 한쪽으로 기울면 오래가지 못한다. 첫 컨퍼런스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목회자들과 교계의 리더가 작은 교회 목회

자와 사모를 일으켰다.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의 언어가 통하는 곳에서 회복은 빨랐으며 사역의 빠대는 더 견고해졌다. 몸과 영혼의 회복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배와 재정, 목회와 가정, 리더의 영성과 팀의 지속가능성이 한 몸처럼 이어져야 한다. 작은 교회를 위한 사역이라면 무엇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 무엇을 과감히 비워야 하는지 기준도 정리됐다.

회복은 리스트가 아니라 루틴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역의 의미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고립을 막는 연결이다. 작은 교회라서 문제가 아니라, 혼자여서 위험하다. 위 브릿지는 상담 창구이자 도움 요청의 첫 관문이 된다. 둘째, 재정과 관계의 이중 안전망이다. 현금 지원과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셋째, 학습 공

동체의 구축이다. 위 브릿지 사역을 통해 일대일 멘토링과 지역 단위 소그룹이 뒤를 잇는다. 좋은 멘토로부터의 배움은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도전이 되고 습관이 된다.

작은 교회가 지역 복음 생태계의 최전선이라는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일이다. 그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의 돌봄과 전도는 빠르게 약해진다. 위 브릿지는 작은 교회가 제자리에서 계속 숨 쉬도록 돕는다. 큰 교회는 자원과 자원을 나눈다. 이민 교회가 안고 있는 균열과 피로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다.교회는 홀로 서지 않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위 브릿지는 그 다리를 세운다. 돈으로만 세우지 않으며 기도와 연대, 배움과 책임으로 세울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이인규 대표는 미주 전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며 이 사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기독일보 편집부

“손현보 목사 구속, 고신교회 전체 정치적 탄압 신호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정태진 목사)가 9일 긴급임원회를 갖고 손 목사 구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신 측은 이 성명에서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은 ‘도망의 염려’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피의자가 도망할 개연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시 단순히 죄의 경중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

의 주거, 신분, 행적 등을 종합해 현실적·구체적 도주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현보 목사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있고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 관련 자료 일체가 이미 공개된 유튜브 자료이며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고신 측은 “이번 고신목사의 구속은 정치적 사건으로 단순히 목사 개

인을 넘어,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고신목사의 구속은 비리나 불륜과 같은 윤리적 불법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빌미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법 집행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또 “매주 설교하는 고신교회의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고신교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임을 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1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간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무료 설치 서비스
FREE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함께는 불편합니다. 혼자서는 편해요. 그러나 모여야 합니다”

남가주 청년 연합 찬양 집회
The Calling, 9월 7일
동양선교교회서 개최
11월 8일 원데이 컨퍼런스
선한청지기교회서

“함께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함께 할 때,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지난 9월 7일(주일)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에서 청년 연합 찬양 집회 The Calling가 개최되었다. 연합 찬양사역팀의 찬양집외에 이어 김명성 목사(LA온누리교회 청년부)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다.

그는 “함께는 불편합니다. 혼자서 하는 건 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함께는 다릅니다. 신경 써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고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교단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르며 공동체의 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 에덴동산에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 하신 하나님, 죄로 깨어진 ‘함께’를 회복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짚으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



남가주 청년 연합 찬양 집회 The Calling이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김명성 목사(LA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가 “함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 ‘함께함’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깨어진 함께를 회복하셨어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 ‘함께함’을 이어가는 공동체”라고 전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레드우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위쪽으로 가면 레드우드 나무가 나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120m까지 자라요. 120m까지 자라려면,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되겠습니까? 보통 식물은 높이 올라가는 만큼 뿌리가 내려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레드우드는 뿌리가 120m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3, 4m밖에 안 내려갑니다. 근데 안 내려져요. 왜일까요? 뿌리가 옆으로

3, 40m를 뻗어갑니다. 그리고 옆 나무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해변가에 태풍이 와도 홍수가 나고 저 높은 나무들이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붙잡아주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 또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인용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개인의 신앙이었습니 다. 그런데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공동체 필요 없어요. 아니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믿음 좋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찢어놓으면 우리 신앙이 식어버려요. 캠프 파이어 할 때, 숲이 모여있으면 계속 불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빼서 밖으로 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의 혼문에 빗대어,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성령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교와 기도예 이어 선한청지기교회의 마성흠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60명이 모여 작은 수련회로 시작된 남가주 청년 연합집회 The Calling은 지난해에는 9개 교회 240여 명이 모였고, 올해는 12개 교회가 함께했다. 그는 11월에는 15개 교회, 300명 이상 청년이 모이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이날 그는 함께한 교회들을 한 교회씩 호명하며 격려와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남가주 새생명교회 △동양선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LA온누리교회 △유니온교회 △ANC온누리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지오엔디교회 △토렌스조은교회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들은 11월 8일,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열리는 ‘Reignite’ 원데이 컨퍼런스에 달라스 뉴송교회의 현지용 목사를 초청해 이 연합 운동을 이어 나가게 된다.

주디 한기자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17회 사랑의 찬양제 개최

선교와 이웃 위한 하모니
9월 21일 5시 나성한미교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회장 이득표 장로)가 제17회 선교와 이웃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를 연다.

9월 21일(주일) 오후 5시에 나성한미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사랑의 찬양제는 초가를 정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은혜와 기쁨을 나누어 온 행사로, 다양한 성가단과 찬양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 (지휘: 김정대), 한인 로고스 교회 (지휘: 이홍우), 실비치사랑의 교회 (지휘: 송종현), 무궁화여성합창단 (지휘: 지경), 나성한미교회 (지휘: 이준실), 은혜 찬양단 (지휘: 지 경), 미주 여성코랄 (지휘: 오성애), 남가주장로 성가단 중창단 (지휘: 김정대) 소프라노 김시연,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출연한다.

행사는 나성한미교회(2727 Du-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주최한 제14회 사랑의 찬양제 모습.

rfee Ave., El Monte, CA 91732)에서 열리며, 문의는 (562) 972-4548, (909) 319-2158로 할 수 있다.

이득표 회장은 “이번 찬양제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

미주기독일보

YouTube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건강하게 ALWAYS HEALTHY

새롭게

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조셉 리기자

집주인과 분쟁이 있으신가요?
세입자 권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정의진흥협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진흥협회 무료 법률 클리닉

- ▶ 일시: 9월 27일 <토> 오전 10시~오후 1시
- ▶ 장소: 미주평안교회 Mijoo Peach Church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다음과 같은 경우
세입자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 ☑ 과도한 임대료 인상
- ☑ 퇴거 방어, 임대 계약 분쟁
- ☑ 미반환 보증금
- ☑ 집주인과의 소통 문제 및 분쟁
- ☑ 거주 환경 적합성 문제
- ☑ 그 외 세입자 권리 전반
- ☑ 수리 및 유지보수 미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전화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관련 기관 안내 및 연계, 문서 작성 지원, 법원 동행 전문 변호사의 전체 법률 대리도 가능합니다.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는 1983년에 설립된 비영리 아태 법률 서비스 센터입니다.



한국어 헬프라인으로 상담 및 예약
클리닉 개인 상담 예약
(800)867-3640



(800)867-3640 또는 ajsocal.org에서 온라인 폼을 작성해주세요. e-mail. askHP@AJSOCAL.ORG

센터메디컬그룹



최신 자가혈주사 PRP 테라피 진료 시작!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한 단계 앞선 치료

임유일 내과 · 송홍우 가정의학과 · 김민성 내과 · 김영래 내과



PRP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조직재생치료

PRP시술은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추출한 후, 혈소판을 뽑아내 환자 본인의 피부 조직이 손상된 부위에 재주사하는 시술입니다.

기존 보존적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투약치료, 물리치료 등)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만성 팔꿈치 통증 환자와 무릎 퇴행성관절염 2~3기 환자에게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농축시켜 얻은 PRP (자가혈소판풍부혈장)를 투여하여 조직재생 및 자가회복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자가치료를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환자 맞춤 치료: 환자마다 다른 통증의 증상과 원인에 맞게, 주치의가 개인별 맞춤 치료를 진행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소속 의료진

임유일 내과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714) 583-8569

송홍우 가정의학과
센터메디컬 클리닉
로랜하이츠 지점

19115 COLIMA RD,
UNIT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626) 363-4661

김민성 내과
CALVIN KIM
INTERNAL MEDICINE

4220 W 3RD ST,
STE 201
LOS ANGELES, CA 90020
(213) 487-4141

김영래 내과
NICHOLAS KIM
INTERNAL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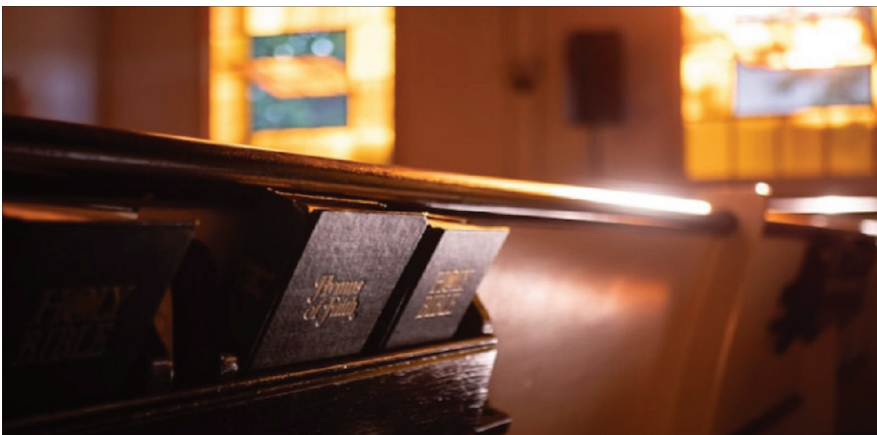
5730 BEACH BLVD,
STE 200
BUENA PARK, CA 90621
(714) 594-6962

PRP 테라피는 **사전 예약 후**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美 기독교인 34% “나는 죄인 아냐” ... 교회 침묵이 혼란 초래

미국 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 산하 문화연구센터(Cultural Research Center, 이하 CRC)가 발표한 <2025 미국 세계관 조사(American Worldview Inventory)>에 따르면, 미국인의 84%는 죄의 존재를 믿지만 52%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34%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으며, 자신을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이들 가운데서도 25%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거부했다. 죄의 존재를 인정한 비율은 ‘자칭 거듭난 기독교인’(99%)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개신교회 출석자

(97%), 자칭 기독교인(95%), 가톨릭교회 출석자(94%) 순이었다. 심지어 자칭 비기독교인 중에서도 61%가 죄의 존재를 인정했다. 응답자 중 죄의 존재를 믿는 이들 가운데 72%는 죄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정의했지만, 52%는 ‘절대적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70%는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관점을 수용했는데, 이는 성경적 인간관과 충돌하는 결과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거듭난 기독교인의 74%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으며, 개신교인(66%), 자칭 기독교인(60%)도 절반 이상



©Aaron Burden/ Unsplash.com

이 이에 동의했다. 반면 가톨릭 신자 중 절반(50%)만이, 자칭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36%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응답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진술에는 거듭난 기독교인의 85%가 동의했으며, 이어 개신교인(73%), 자칭 기독교인(66%), 가톨릭 신자

(57%), 자칭 비기독교인(23%)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Z세대의 41%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믿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그 같은 관점이 5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세대 간 신앙 교육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CRC 연구 책임자이자 바나그룹 창립자인 조지 바나(George Barna) 교수는 “2019년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설교 중 ‘죄’를 언급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강단에서 중심 교리를 거의 다루지 않으면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와 구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죄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진리”라며 “교회가 죄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치명타가 된다. 죄를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교회 모두의 정체성에 대한 소중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윤준 기자

“문화 선교, 복음의 씨앗 심는 다음 세대 위한 투자”

굿뉴스 콘서트 패밀리(Good New Concert Family, 이하 GNCF)가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에서 ‘2025 GNC 콘텐츠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 영화와 뮤지컬, 찬양사역자, 연주자 등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교회 문화목회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포럼, 2부 페스티벌 순으로 진행됐으며 포럼은 윤성인 선교사(광야아트미니스트리)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독교 영화 ‘CONFideNCE’를 관람했으며 이어 이보람 목사(케어코너즈)가 영화 ‘CONFideNCE’의 제작 계기, 영화예배에 대한 설명 및 메시지를 전했다. 이목사는 “저는 영화 ‘CONFideNCE’가 영화라기보다 메시지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설교 말씀을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고, 상영 후에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리는 것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완전한 예배가 된다고 믿는다. 영화 속에서 ‘회사=교회/신앙생활’, ‘사구=성경 말씀’, ‘이메일=기도’, ‘채택근무=온라인예배’, ‘월급 10% 반납=11조’로 풀어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직분으로 오해하지만, 하

나님 앞에서는 직분보다 신앙의 성숙이 승진임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컨피던스(Confidence)’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주인공이 답을 얻은 것도 요령이나 기술이 아니라, 회개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사역을 언제나 예배형 상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단순히 감동적인 영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연결한다. 실제로 청년, 어르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도 이 영상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다. 놀라운 건 4명의 작은 팀과 평범한 성도 배우들로 영화를 제작했지만, 하나님이 공간과 협력을 열어주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만든 ‘폴링’, ‘스크립트’, ‘컨피던스’는 교회 요청이 오면 파일과 함께 설교 안내문, 소그룹 나눔지를 보내드린다. 그래서 상영이 단순한 문화 소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적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돕고 있다. 실제 피드백 중에는 ‘비본질적인 신앙에서 돌이키게 됐다’, ‘주간보고식 기도에서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고백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삶에 맞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세대의 언어가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답을 주입하기보다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도구로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 더 많은 교회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를 경험하길 바라고, 그 안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관영 목사(광야아트미니스트리 대표)가 ‘문화목회의 정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목사는 “2019년부터 저는 복음 중심의 문화 사역자들과 함께 ‘굿뉴스 콘텐츠 데이/포럼’을 열어, 영화·공연·음악 등 복음 콘텐츠를 목회 현장에 바로 쓰이도록 돕고 있다. 코로나로 공백이 있었지만 올해 다섯 번째로 이어갔고, 우리의 초점은 한결같다. 왜 만드는가를 넘어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답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돌보는 목회자라는 만인제사장 관점에서, 목회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 논의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문화를 ‘마음의 경작’을 통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경작·보존)에서 사역의 토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배·친교·선교·교육이라는 목회의 4대 영역 속에서 문화 예술은 복음을 가장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라 믿는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붙어 있게’ 만드는 것으로 둔다.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 비춰 목회는 결국 ‘예수님을 먹여 예수로 살게 하는 일’이라 확신하고, 교회 안의 세례와 성찬을 복음 드라마로 받아들여 문화목회의 성경적 근거로 삼는다”고 했다. 이어 “현장 데이터를 통해 확신하게 되는것이 기독교 뮤지컬에 대한 선교적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다. 광야아트센터 8년 상설 운영에서 관객의 30~40%가 초·중·고·대학생임을 확인했다. 복음 콘텐츠가 다음 세대를 말씀과 공동체에 붙들어두는 효과가 분명했고, ‘요한복음’·‘오병이어’ 같은 작품은 성경 읽기와 신앙 습관의 변화를 촉발했다. 저는 영화 상영을 예배 포맷(상영→말씀→통성기도)으로 묶어 감동이 결단으로 이어지게 운영하고, 이 원칙을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문화목회 발전소’를 세워 자료·훈련·사역 매칭을 제공하고,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쉽게 적용할 도구를 공급하려 한다. 교회의 응답은 분명하다. 검증된

복음 콘텐츠를 정기 편성하고, 부서·캠퍼스·지역 사역에 맞춘 활용 시나리오를 공동 설계하며, 제작자들과 지속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의 일상 속에 복음에 합당한 문화생활을 심을 때, 성도는 말씀과 교회에 더 단단히 붙어 있고, 한국교회는 문화 속에서 복음을 또렷하게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가 문화목회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김목사는 “지난 10여 년간 문화 선교는 단순한 공연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담은 콘텐츠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사역으로 자리 잡아 왔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오병이어 같은 뮤지컬과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졌고, 이를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마음을 열고 결신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 선한목자교회는 재정과 인력을 아낌없이 투자해 광야아트미니스트리와 협력하며 문화 선교의 동력을 이어왔고, 문화 선교사를 파송하며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넓혔다. 아이들부터 시니어까지 참여하는 극단이 세워지고, 매년 문화 선교주일과 전도 집회를 통해 수백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어졌다”고 했다.

홍은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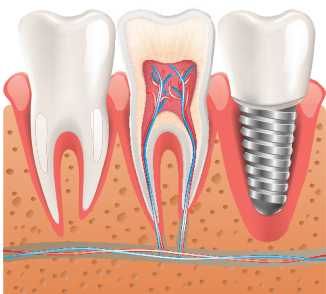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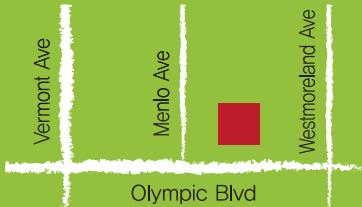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코리아타운이 처음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던 그 때처럼
이제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공산주의와 싸움은 영적전쟁... 美정부, 韓기독교 탄압 주시

美 보수주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 빌드업코리아서 강연

미국 보수주의 청년운동가이자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인 찰리 커크(Charlie Kirk·30)가 최근 빌드업코리아[김민아(엠컴) 대표] 참석차 방한해 기독교적 가치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산주의에 맞서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찰리 커크는 미국 젊은층에서 영향력이 있는 활동가로, 지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그의 당선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된 ‘2025 빌드업코리아’ 강연자로 나선 커크는 공산주의를 ‘자유를 파괴하고 우울함을 퍼뜨리는 어둠의 체제’로 규정하며, “이에 맞서는 싸움은 단순한 물질적 충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는 싸움”이라며 “복음 전파와 기독교적 가치가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강



(왼쪽부터 순서대로) 빌드업코리아 김민아(엠컴) 대표, 터닝포인트 USA 찰리 커크 대표, 통역을 맡은 조안 목사.

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주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개혁

자 정신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마르크시즘과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그가 터닝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됐다.

그는 “대학 캠퍼스에서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수천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며 수억 뷰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성장했다”며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많은 주에서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SNS의 활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생각이 다른 이들과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때로 여러분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에 대해 커크는 “진보는 억압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아닌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가 복지를 맡으면 교회는 작아진다”며 “대한민국에 더 큰 교회와 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그는 “이 나라와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국 내에서의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연 말미, 커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해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기적으로 태어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는 문명의 기초이며, 성경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며 “모든 일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감옥에서 신앙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다.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윤준 기자

손현보 목사 구속보다 더 염려하는 건 '교회의 침묵'

차금법 없는데도 설교 문제삼아 구속 ‘설마 선은 넘지 않겠지’ 했는데 덜컥 목사가어딜도망가나... 밍보여서 낙인 ‘그런가 보다’ 남 일로 여기면 답 없어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가 9일 새벽예배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을 우려하며 한국교회가 침묵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목사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이 됐다. 단순히 ‘목사니까 목사 편을 들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분이 개인 비리로 재정 비리를 일으켰다든지 (십계명의) 칠계를 범해서 구속이 됐다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것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의 진리대로 설교를 했을 때 그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설교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설교에는 단순히 위로와 평안을 선포하는 내용도 있지만 선지자적 외침도 꽤 있다. 그러면 그것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가 될 수 있다”며 “결국은 입을 다물게 하는 도구로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교회 안에서 행해진 설교를 문제삼아 (손현보 목사들) 구속을 시켰다”며 “이분의 표현이 과했다고 나도 생각한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행해진 보수 교육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선거운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자체가 충격”이라고 했다.

그는 “설마 했다. ‘선은 넘지 않겠지’ 그런데 덜컥 구속을 했다”며



박한수 목사 ©기독일보 DB

“구속한 이유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어딜 도망가나. 밍보여서 낙인 찍은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침묵하는 것이다... 이래도 한국교회가 침묵한다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 그

는 “이제 무슨 설교를 할 건가. 벌써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 찌소리 안 할 것이다. 성도들도 아무 소리 못 할 것”이라며 “우리가 뼈를 깎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남의 일로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 정말 답이 없고 말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이렇게 겁박하고 설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면 정말로 답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다 모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적과 맞서서 잘 정비해서 싸워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목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목사와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던 정승윤 후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손 목사와 정 후보가 세계로교회에서 대담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후 5월, 경찰은 손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진영 기자

TV 기독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 / chdaily1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You

Tube

무신론자 상당수,
기도도 하고 사후 세계도 믿는다



©Imad Alassiry/ Unsplash.com

최근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국제적 조사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없는 사람들, 이른바 ‘무신론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신을 믿고 기도하며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영국에서는 무신론자의 약 24%가 신을 믿는다고 답했으며, 독일(27%), 프랑스(20%), 캐나다(25%), 미국(45%)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더 널리 퍼져 있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무신론자의 40% 이상이 사후 세계를 믿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 무신론자들은 종교적 소속이 없음에도 기도나 예배 참석 등 종교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55%가 가끔 기도한다고, 영국에서는 약 34%가 종교 예배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미국

에서는 무신론자 여성의 63%가 자연에 영혼이 깃들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남성은 46%에 그쳤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영적 신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무신론자들은 특히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페인의 경우 종교가 없는 성인의 77%는 종교를 미신적 사고라고, 71%는 종교가 편협함을 조장한다고, 62%는 종교가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했다.

반면 브라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무종교인 중 약 4분의 1 이하만이 종교가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답했다. 이들 국가의 다수 무신론자들은 오히려 종교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무종교인은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미셀 기자

英 런던서 ‘생명을 위한 행진’
1만여 명 참가



영국 생명을 위한 행진. ©March for Life UK

영국 전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시민이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생명을 위한 행진 UK 2025(March for Life UK 2025)’에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날 최소 1만 명이 행진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행사에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지만, 주최 측은 무신론자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교회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국회의사당 광장까지 행진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올해 행진에는 성공회·가톨릭 주교들을 비롯해 복음주의 설교자 글렌 스크리브너,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복음주의 신학자 아론 에드워즈 박사, 칼라 록하트 하원의원, 생명운동가 리건 킹 등이 지지를 보냈다.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록하트 의원은 “인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이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공동 디렉터 이사벨 분-스프루스는 연설에서 “태아는 값진 생명인가, 아니면 무가치한 조지 덩어리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정치인, 목회자, 의사, 언론인 등 모든 이가 선택해야 한다. 두 세계관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분-스프루스는 “숫자보다 기쁜 것은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생명

옹호 이야기들”이라며, 대학에서 생명운동 동아리를 만들려는 학생이나 기도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부 참가자는 교회 내 커피 모임을 통해 생명운동을 확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리적 차이를 넘어 다양한 교단의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 된 모습이 특히 감동적이었다”며 “런던 중심부가 다른 시위로 혼란스러웠지만, 생명 행진 참가자들은 평화와 기쁨으로 그들의 확신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에드워즈 박사는 이번 행사를 “낙태의 오명을 이 땅에서 지우기 위한 중요한 공격적 증언”이라며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스크리브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낙태의 규모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태는 전 세계적으로 태어난 뒤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낙태 클리닉 인근 완충지대에서 ‘침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애덤 스미스-코너 역시 현장에 참석해 “생명 존엄을 위한 훌륭한 증언이었다”며 “우리는 아기와 노인을 보호해야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동 디렉터 벤 대치는 “더 많은 이들이 생명운동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권을 말하려면 먼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생명도 너무 작거나, 어리거나, 의존적이라서 가치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권리는 반드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게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인 Only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경 선교 서울 뿐만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종부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중등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절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 오전 6: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차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잡으려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헌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오후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담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령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Z세대, 미국 내 교회 출석률
기성세대 앞질러

©pixabay

미국의 젊은 세대인 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자주 교회를 찾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세대별 교회 출석 패턴이 뒤집힌 것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바르나 그룹(Barna Group)은 최근 ‘교회의 현황(State of the Church)’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높은 빈도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5,580건의 온라인 인터뷰를 기반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인 교인 3,57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월평균 교회 출석률은 1.6회였다. 그러나 Z세대의 출석률은 1.9회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밀레니얼 세대 역시 1.8회로 뒤를 이었으며, X세대는 전체 평균과 같은 1.6회를 기록했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생)와 장년층(1946년 이전 출생)은 각각 1.4회로 가장 낮았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3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월평균 출석률은 2020년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세대 모두 사상 최고치다.

바나 그룹의 연구 부대표 다니엘 코플

랜드는 “젊은 세대가 이전보다 더 자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통상적으로는 연령이 높은 층이 교회 출석에 더 충성도를 보이는데, 이번 데이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며 영적 갱신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령층에서는 반대 흐름이 뚜렷했다. 2000년 장년층의 월평균 교회 출석률은 2.3회였지만, 올해는 1.4회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2000년 2.0회에서 2025년 1.4회로 하락했다. X세대는 2000년 1.4회에서 2025년 1.6회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전 세대가 기록적으로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사 결과가 다른 연구들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성서공회(ABS)가 발표한 ‘성경 현황 USA 2025(State of the Bible USA 2025)’ 보고서에서는 Z세대가 교회의 사역과 공동체 참여 수준에서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 응답자들은 신앙 성장의 기회, 교회 내 친밀한 관계, 영적 성장을 격려하는 멘토, 목회자의 관심, 은사 활용 기회 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낮았다.

이미경 기자

美 댈러스 대형교회, 신임
담임목사로 토머스 다니엘 선출

토머스 다니엘 목사. © HP Pres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의 대형교회 하이랜드파크 장로교회(Highland Park Presbyterian Church, 이하 HP Pres)가 갑작스러운 담임목사 별세 이후 약 2년 만에 새로운 담임목사를 맞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HP Pres는 목회자 청빙위원회의 만장일치 추천과 교인 총회 투표를 거쳐 토머스 다니엘(Thomas Daniel) 목사를 신임 담임목사로 선출했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926년 설립된 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니엘 목사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영광스럽다”며 “댈러스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에 큰 감사와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출신인 그는 데이비드슨 칼리지, 컬럼비아 신학교(M.Div), 목회학 박사 학위를 보유했으며, 지난 12년간 오스틴의 코버넌트 장로교회(Covenan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로 섬겨왔다. 총 25년 이상의 목회 경력을 지닌 그는 설교자이자 리더로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했다. 그의 아내인 베스 다니엘 목사 역시 목회자 리더십 훈련 단체인 ‘더 미니스트리

콜라보라티브’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두 딸은 베일러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다니엘 목사는 고(故) 브라이언 더너건(Bryan Dunagan) 전 담임목사와의 인연도 회상했다. 그는 “더너건 목사와는 애틀랜타에서 부목사로 함께 섬길 때부터 20년 가까이 친구였다”며 “그의 뒤를 이어 HP Pres의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더너건 목사는 2014년부터 HP Pres를 이끌며 5,500여 명의 교인을 목양했으나, 2023년 10월 44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교회는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도

와 분별의 과정을 거쳐 후임자를 찾았다.

다니엘 목사는 자신의 목회 비전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을 창의적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해왔다”며 “HP Pres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도록 함께 사역하고 싶다”고 전했다.

HP Pres 청빙위원회 공동 의장 켈시 필립스는 “1년이 넘는 기도와 분별 끝에 다니엘 목사를 새로운 담임목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의 예수님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마음, 비전 있는 리더십이 교회를 다음 100년의 사역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파키스탄 순례 가던 가톨릭 신자 무슬림 청년에 피격 사망



총격을 받고 사망한 아프잘 마시의 모습.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Morning
Star News courtesy of family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편자브주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탄생 대축일 순례에 나섰다가 무슬림 청년들의 총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7일 라호르의 삼나바드 지역에 거주하던 아프잘 마시와 그의 사촌 해리스 타릭 마시는 친척, 여성, 아동 등 12~13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셰이크푸라 지구 마리암아바드의 성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와 동행했던 동승자에 따르면 새벽 1시 30분경 셰이크푸라 고속도로에서 이들의 차량은 두 대의 오토바이를 탄 무슬림 청년 3명에게 가로막혔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여성 승객들에게 희롱성 발언을 하며 차량을 위협했고, 이에 앞좌석에

앉아 있던 아프잘이 제지하자 그를 끌어내 폭행했다.

순례자들이 간신히 상황을 벗어나 길을 재개했으나, 주유소에 정차했을 때 같은 청년들이 무장한 채 나타났다. 이들은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겨누고 총격을 가했으며, 아프잘은 목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촌 해리스는 팔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범인으로 파루카바드 출신 무함마드 와카스를 특정해 사건을 접수했으나, 사건 발생 이후 아직 체포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아프잘은 생전 리카 기사로 일하며 부인과 네 아들을 부양해 왔다. 아프잘의 아들 빌랄은 “부모님 모두 힘겹게 일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전했다.

기독교인 변호사 카시프 네맛은 이번 사건이 명백히 종교적 박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연히 자동화기로 범행이 이뤄졌음에도 반테러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런 태도가 다수 집단의 폭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맛 변호사가 이끄는 구드 사마리탄 사회개발재활단체는 피해 가족을 돕기 위해 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와 경찰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약자에 대한 폭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 공동체의 연대를 촉구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이며,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어려운 국가 8위에 올라 있다. 최승연 기자

의료적 안락사, 인간 존엄을 해치는가



빌 데이비스 교수. ©Christian Post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빌 데이비스 교수의 기고글인 “의료적 안락사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What do Christians believe about Medical Assistance in Dying?)를 8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빌 데이비스 교수는 조지아주 록아웃 마운틴에 있는 커버넌트 칼리지(Covenant College) 철학 교수이자,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철학 겸임 교수이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2025년 6월 1일, 뉴욕타임스는 캐나다의 ‘의료적 안락사(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제도를 다루며, 폴라리치(Paula Ritchie)의 사례를 중심으로 긴 기사를 보도했다. 그녀는 수년간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싸웠고,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성경적으로 볼 때, 폴라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로 인한 세상의 깨어짐 속에서 나타난 비극의 한 단면이다. 어떤 이는 이 타락의 영향을 남보다 훨씬 더 깊게 경험한다.

기독교인이라면 의료적 안락사 법을 반대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런 고통 속에서 빠른 죽음을 ‘해결책’이라 여기는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함께하고 귀 기울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친다(시편 24:1, 신명기 10:14).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로서만 생명을 거두실 권한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창세기 1:26 - 27)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의료적 안락사를 지지한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죽음을 원한다면 돕는 것이 오히려 자비라고 주장한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달린 대부

분의 댓글 역시 이 논리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는 성경적 인간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감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된다고 쉽게 느낀다. 이런 순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의료인조차 치료 불능의 상황에서는 무력감을 느끼며, 오히려 ‘평화로운 죽음’을 돕는 것이 자비라고 착각할 위험에 빠진다. 그러나 성경적 사랑은 고통을 이유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삶의 작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다.

기도하며 곁에 서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모두가 그들에게 살아 있는 위로가 된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고, 부활을 통해 고통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증언하셨다.

인간 존엄을 왜곡하는 의료적 안락사

현대 사회는 자율성을 인간 존엄의 근거로 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됨이 존엄의 근거라고 말한다. 의료적 안락사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지위에서 끌어내림으로써 결국 모든 사람을 비인간화한다.

기독교 의료인들뿐 아니라 많은 양심 있는 의료 종사자들이 의료적 안락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치유자로 부름받았지, 죽음을 돕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학의 한계를 인정할 때

의료적 안락사 반대의 근거는 단지 신학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의학적 실천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하는 소명을 받았다. 그러나 안락사는 의사를 치유자가 아니라 살해자로 만드는 위험이 있다. 이는 의학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환자를 사람보다 문제로 보게 만든다.

의료적 안락사는 종종 ‘연민’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이다. 가족과 공동체가 보여주는 사랑과 동행이야말로 의학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와 생명 불빛기를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의학의 본질을 왜곡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단순히 법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들이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연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톨릭)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아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고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배변은 숙면제거와
먹으면서 제충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美 트럼프 측근 찰리 커크, 피격 사망

미국 보수 운동가이자 ‘터닝포인트 USA’(Turning Point USA) 창립자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찰리 커크가 10일 오후 12시 20분경(현지 시각) 유타밸리대학교(UVU)에서 열린 캠퍼스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한국 빌드업코리아 참석 자유의 중요성 강조하기도

커크는 최근 빌드업코리아[김민아(엠킴) 대표] 참석차 방한해 기독교적 가치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 며칠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행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흰색 천막 아래에서 연설하던 커크가 총격을 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총성이 울리자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라고 외치며 흩어졌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AP통신에 “커크는 수요일 유타에서 열린 행사 도중 총격을 받고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정오 무렵, 학생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초청으로 연설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오후 12시 20분경, 연설 장소로부터 약 200야드 떨어진 건물에서 총성이 울렸다. 커크는 총에 맞았고 즉시 경찰원에 의해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UVU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캠퍼스를 전면 폐쇄한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캠퍼스 내에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 지시에 따라라”고 경고했다.



찰리 커크(Charlie Kirk) 1993 - 2025. ©Turning Point USA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커크의 사망 소식을 확인했다. 트럼프는 “위대하고 전설적인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품었던 인물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나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다. 이제 우리 곁에 없다니 믿기 어렵다”며 “멜라니 아와 나는 그의 아름다운 아내 에리카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찰리,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썼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찰리 커크는 이날 ‘아메리칸 컴백 투어’(American Comeback Tour)의 일환으로 UVU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이날 말에는 유타주립대학교에서도 강연이 예정돼 있었다. 그의 강연은 종종 진보 성향 학생들의 시위와 반대 청원에 직면해 왔다.

이번 투어는 유타 오렐에서 시작해 전국 대학을 순회하며 “좌파 학내 세뇌에 맞서 싸우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도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X를 통해 “찰리 커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자

젊은 아버지였다”고 밝혔다.

마이크 리 유타 상원의원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찰리 커크와 모인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찰리 커크를 위해 기도한다. 그는 놀라운 기독교인, 애국자, 그리고 위대한 인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비밀경호국(SS)은 성명을 통해 “커크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보안 운영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보호 수단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커크는 2021년 5월, 전 미스 애리조나 USA 에리카 프란츠베(Erika Frantzve)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세 살 딸과 한 살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최근 저서 <The MAGA Doctrine: The Only Ideas that Will Win the Future>를 포함해 총 네 권의 책을 집필했다. 또한 The Charlie Kirk Show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지난 12개월간 1억 2천만 회 이상 다운로드되며 애플 팟캐스트 차트 상위 10위권에 꾸준히 올랐다. 강해진 기자

→ 1면 기사 < 손현보 목사 구속...>에 이어서

이어 “고신목사의 구속은 비리나 불륜과 같은 윤리적 불법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빌미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법 집행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또 “매주 설교하는 고신교회의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고신교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임을 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신교회

는 부당한 공권력의 무도한 판단과 행위가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고신교회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편, 고신 측은 이 성명과 별도

로 손 목사 구속과 관련해 ‘고신교회에 드리는 긴급 기도 요청’의 글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고신 측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손현보 목사님과 가족들, 세계로교회 교우들과 고신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교회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상황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목동 칼럼

두고 온 만주 벌판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지난 글에서 비전 50 선교회가 필자의 전임 목사이자 원로목사이신 윤일흠 선교사께서 30 여 년 전,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던 연변의 꽃제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에서 시작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때 국경 일대에서 어린 생명의 눈물을 닦아주던 작은 사랑이, 주님의 권능에 불들려 오늘의 세계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위대한 불씨가 되었다. 하여 2000년대 초, 우리는 중국 동북삼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조선 족과 한족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게 되었다. 필자 역시 연길, 통화, 영안, 무단장, 하얼빈, 훈춘, 장춘, 심양, 강평, 내몽골 인근 교회들을 두루 방문했다. 놀라운 것은, 그곳 교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초대교회처럼 치유와 축사와 같은 능력이 드러났으며, 이는 부족한 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당시 조선족 사회는 큰 격변기를 지나고 있었다. 많은 가정이 이산가족이었고, 부부 중 한 명 혹은 모두가 한국으로 일하러 떠난 사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흔했다. 남편이 술에 의지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가정도 많았다. 그 속에서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장학 사역을 시작하였다.

현지 목회자들이 추천한 학생들을 면담하며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도록 격려하였

다. 그 결과 수많은 학생과 신학생들이 지원을 받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며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정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로 자라났다. 이 장학 사역은 30년 동안 수만 명을 후원하며 각 지역 교회의 부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필자가 섬긴 교회의 성도들이 해마다 선교 기간마다 \$300~\$500 을 기쁨으로 봉헌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을 씬 없이 이어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30년 전부터 동북 삼성 지역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여 성전 건축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에 비전 50 선교회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원리를 따라 현지 교회의 헌신을 우선 요구하였다. 교회의 절반 헌금이 마련된 것을 확인한 후, 나머지 절반을 지원하여 2003 년부터 2010 년까지 23개 조선족·한족 교회 예배당을 봉헌할 수 있었다. 대형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동시에 건축 사역이 지역 교회에 도움은 되었으나, 선교의 확장성과 부흥보다는 안일함으로 이어지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필자는 선조들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만주 벌판을 밤기차를 타고 수없이 오갔다. 운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처럼, 기차 창가에서 만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시간 기도하곤 했다. 그러나 2010 년을 지나며, 동북 삼성 지역 선교의 확장성과 역동성이 점차 사라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많은 한국 교회의 지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선족 교회의 영적 순수성과 자생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필자는 만주 벌판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 50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고 온 만주 벌판’은 비전 50선교의 출발지였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민족을 끊임없이 만주 벌판에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 또 감사할 뿐이다.

강준민 칼럼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대하 1:7).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대하 1:12).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루는 시각 장애인인 예수님께 나아와 크게 소리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크게 소리 질러 간구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막 10:51상). 시각 장애인인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막

10:51하).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막 10:52).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 103:5).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 속에 풍성한 은혜를 숨겨 두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건강과 강함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하지 않은 가시를 주셔서 그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 그 가시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상). 하나님의 거절도 기도 응답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을 통해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거부하고 싶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검흔’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고후 12:7). 그는 가시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

다. 겸손처럼 좋은 선물, 겸손처럼 복된 성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약 4:6).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은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후 12:9 하 - 10). 바울은 육신의 힘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육신을 약하게 하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영혼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길 원했던 곳은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 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는 그가 원했던 곳이 아니었고, 감옥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16:30 - 34).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죄사슬에 매여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 군인들과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가

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빌 4:22).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부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거부하고 싶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십니다. 정말 거부하고 싶은 장소에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정말 거부하고 싶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자주 묵상합니다. 그는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을 통해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 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물론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거부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거부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창 50:20). 예수님이 가장 거부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나 관계, 혹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 두신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론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의 결론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202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커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9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복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라

IXΘΥΣ

러빙워십 찬양 콘서트 익투스 — IXΘΥΣ

- Speakers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 Joseph Lee 목사
- Loving Worship
Praise Team
- Tickets

\$10 | 213.357.1565
- Guests

조혜련, 브라이언 킴



Saturday [토]
10.04.2025 — 6:30PM

새생명비전교회
4226 Verdant Street
Los Angeles, CA

Sunday [주일]
10.05.2025 — 7:30PM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nue
Buena Park, CA

Friday [금]
10.10.2025 — 7:30PM

나성영락교회
1721 North Broadway
Los Angeles, CA

진유철 칼럼

말레이시아에서의 ‘열방전’ 수련회를 다녀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C
국 사역자들의 말레이시아 ‘열방전’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는, 생각과 달리 약함과 부족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오후 청년
교구의 아외예배까지 잘 마치고 공함에 가서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
들의 소중한 사랑으로 인하여 부족한 마음이
채워짐을 깨달으며 두려움이 믿음의 용기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는 LA에서 비행기 출발시간부터 싱가포르 공항을 경유하여 총 22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반도보다 1.5배 큰 땅에 인구가 3천5백만 명 되는 헌법상 이슬람 국가로 매일 06시가 되면 온 동네에 있는 모스크에서 확성기를 통해 요란한 기도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교회나 성당, 절과 힌두성전도 있지만, 법으로 말레이인들의 전도와 개종을 엄격히 금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성도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 때는 전 세계 모슬렘의 경제권이 집중되어 큰 빌딩들이 즐비하고, 제가 가본 동남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보다 외견상으로는 부유해보였습니다. 이번에 '열방전' 수련회의 장소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로 중국계 3세인 담임목사님이 조용기목사님의 영성을 배운 이후 놀라운 성장을 이룬 순복음교회였습니다. 특별한 배려로 교회 빌딩의 한 층을 빌려주었고, 모든 집회를 시간 제약 없이 마음껏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

다. 또 쿠알라룸푸르 한인 순복음교회 윤국승 목사님이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며 저를 라이드 해주었고 사모님과 함께 섬겨주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C국의 기록과 펄박에 대해서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실감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슴 깊이 파고 들어오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열방전'을 위해 애쓰며 기다리셨던 권요셉선생님이 오지 못하였는데, 최근 들어 매주 일 예배마다 공안이 와서 사진을 찍으며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혹시 일어날 불상사에 대비하여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 주 간에는 C국의 남서부 쪽의 사역자들 7명이 잡혀가서 심문을 당하였고, 2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펄박으로 작년보다 7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회 이틀째 날에는 많은 일을 담당하는 한국 사역자 정선생님의 C국 체류비자를 제공하는 회사를 공안이 급습

했다든 연락을 받고는 초긴장 상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수련회 내내 간절함 기도로 용기를 얻어 돌아가셨는데, 무사히 입국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다 보니 새벽부터 밤까지 육신의 피곤함은 개의치 않는 처절함으로 기도하며 매달렸고, 부모를 따라온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는 집회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낮이고 밤이고 긴 설교를 마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시차와 육신의 한계를 이겨내는 비장함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멘텀이 되었다고 간증하거나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두려워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역자들과 자녀들이 많아서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순종하는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살롬!

김영한 칼럼

WEA는 어떤 단체이며 신학은 무엇인가(I)

머리말

올해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WEA 총회 개최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성공적으로 자전·자립·자치하고 사회적으로 주도 종교로서 안착했는데 이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초청하여 21세기 선교의 비전과 방식을 함께 의논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그리고 동성애, 문화 마르크시즘, 세속주의, 물질주의, 자유주의가 지배력을 가지는 지구촌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 되신다'는 성경적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주의가 증언의 나팔을 높이 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소속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 Korea Evangelical Fellowship)는 올해 2월 “세계복음주의운동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WEA신학과 현황”에 대하여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동안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의 일부 보수교회 연합단체에서 “WEA가 신사도 및 신복음주의적이다”고 비난하면서 WEA 서울 총회 개최 불가를 천명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연합동맹종교화장단의 WEA 총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WEA 서울총회 신학위원회가 “WEA에 대한 증경총회장단의 입장이 WEA의 실체와 본질,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 중대한 왜곡과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에는 신학위원회가 그동안 WEA에 대해 제

기반 반대자들의 질문에 대한 서한(2025년 8월 14일 답변)에 근거하고 있다. 2025년 8월 14일 WEA의장 Dr. Shana가 WEA서울총회 신학위원회에 보내온 서한(A4 용지 3쪽)은 WEA에 대해 가해진 혐의를 벗기기에 충분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WEA 신학의 투명함, 복음에 대한 WEA의 확신, 종교다원주의 지지하지 않음, 다른 입장 가진 자들과 대화이유는 신학적 양보가 아닌 전략적 근거: 복음의 진리를 직접 명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적대감과 갈등을 피하기 위함,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서기를 원함이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신학위의 설명에 납득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21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가 ‘WEA는 신사도와 신복음주의가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필자는 한국복음주의 신학계의 한 원로신학자로서 이 사실을 보고만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부족하나마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신근본주의의 분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복음주의운동과 함께 선교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이다.

필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신학부에서 8년간,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1년간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2년간 연구한 해외 연구 경력과 국제기독교연합기관 방문 및 교류 경험을 갖고 있다. 2002-2020년까지 18년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신학위원장, 2008년-2016년까지 8년간 AEA(아시아복음주의 연맹)의 신학위원장, 2020년부터 현재까지 KEF 자문

위원으로 섬기는 경험에 따라서 필자가 아는 WEA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WEA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신학계 원로 한 사람으로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정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해주기를 바란다.

I.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WEA를 거부하는 것은 신근본주의적 분리주의 행태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은 1846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첫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 당시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의 52개 교파로부터 800명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였다. 현재는 146개국 14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모임의 창립 동기는 신학적 자유주의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19세기 중반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것이다.

필자는 오늘날 한국보수교회 안의 일부 근본주의 진영이 WEA를 “신사도 운동 내지 신복음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오해 내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WEA 서울총회 신학위원회가 답변한 내용은 WEA의 모습을 바르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본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충현교회 김청인 목사,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 노량진교회 립인식 목사, 갑브리교회 박조준 목사, 아신대 설립자 한철하 교수, 서울신대 초대총장 조종남 교수, 합신대 초대 총장 박윤선 목사, 고신대 총장 이근삼 교수 등 한국교회 선

배들이 WEA와 교류하고 우리들에게 복음주의 전통을 물려주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구절에서 거룩한 공회란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말한다.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곁잡하거나 분리되지 않고 신앙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작년에 열세하신 국제내외에서 신뢰받는 김명혁 목사, 종신대신학대학원 명예교수들, 김성태, 박용규, 이한수 교수 등은 한국교회와 WEA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21년에 교회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귀중한 연구서(가리온, 2021.)를 공동으로 발간한 바 있다. 이 책 내용의 핵심은 제목처럼 “세계복음주의연맹(WEA)와의 교류 단절은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분들의 생각에 공감한다.

한국교회는 2024년 제4회 로잔 인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선교와 복음전도와 교회의 잠재력에 있어서 세계교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에 오시는 해외 복음주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신사도 내지 신복음주의자”라는 극단한 용어로 폄하하는 것은 기독교인 이전에 동방예의지국의 예의에 어긋난다. 한국개신교의 90% 이상이 참가하는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UCCCK) 소속 교단들은 WEA 총회를 환영하고 있다. 오시는 해외지도자들은 한국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체험하고자 오시는 데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이들과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제를 <계속>

편안해요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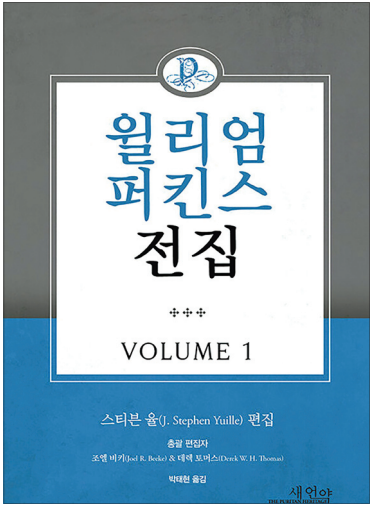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청교도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 성경 강해’ 윌리엄 퍼킨스의 위대한 유산



윌리엄 퍼킨스 전집 Volume 1

윌리엄 퍼킨스 | 박태현 역 |
새언약 | 1,440쪽 | 85,000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16-17세기 청교도, 게다가
역사적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인 청교도의 신학과
경건을 우리 손에 직접 들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
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
라” (히 11:4하). 명석한
신학자요 따뜻한 목회자요
경험적 설교자가
성도의 성화를 위한
지혜의 열매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퍼킨스의
저술이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제공할길
소원한다

무려 1,440페이지나 된다. 그것도
첫 번째 모음집만. 총 10권으로 구성
된 윌리엄 퍼킨스 전집, 그 방대하면
서도 풍부한 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의 깊은 묵상과 하나님 중심적
성경 강해가 우리말로 보급되기 시작
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격스럽다.
남침례신학교 총장 알버트 몰러는
청교도 신학을 형성한 지도자들과 신
학자들 사이에 윌리엄 퍼킨스가 있었
다고 말하고, 제임스 패커는 “퍼킨스
의 넓은 어깨 위에는 17세기 청교도
목회자들과 성직자들 전체가 서 있었
다”고 평가했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케임브리지 성 앤드류
대학교에서 강사 및 설교자로 봉사하
고, 크라이스트 칼리지, 코르푸스 크
리스티 칼리지 등에서 교수로 가르치
면서 리처드 심스, 존 코튼, 존 프레스
턴, 윌리엄 에임스 등 젊은 청교도인
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방
대한 저술 활동을 통해 영국과 미국
의 개혁신의 신학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건한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엘 비키와 데렉 토
머스가 총괄 편집하고 스티븐 윌이
편집한 윌리엄 퍼킨스 전집 1권은 ‘
신구약 성경의 다이제스트 또는 하모
니’와 ‘그리스도와 마귀의 전투 혹은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한 주석’, 그리
고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대한 경
건하고 박학다식한 강해’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글에서 퍼킨스는 일종의
성경 연대기를 제시하는데(창세기부
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고대 역사
와 선지자들, 복음, 역사 전체의 요약
및 주목할 만한 도치 등을 담아내려
했다. 두 번째 글은 마태복음 4장 1절
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본문을 자세히 주
해한다. 세 번째 글은 이 책에서 가장
긴 글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
29절까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말씀
을 깊이 있고 풍부하게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퍼킨스의 설교는 제목
처럼 ‘박학다식’하다. 본문의 단어, 구
문, 표현 등을 정말 오래 붙들고 곱씹
으며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교

훈과 적용, 반대와 그에 대한 대답 등
을 상세히 풀어낸다. 시편 기자는 “내
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
조리나이다(시 119:97)”라고 고백했
다. 청교도인들의 글을 읽을 때, 시편
기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정말 하
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 말
씀을 종이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
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헤아린다.

청교도에게 큰 영향을 미친 퍼킨스
의 글에서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칭송하
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없는 죄악을 회개
하고, 하나님 말씀의 심연에 깊이 빠
져든다. 어떤 독자는 ‘이렇게까지 자
세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이런 주
제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
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퍼
킨스는 단순히 장황한 생각을 쏟아내
는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펼
쳐놓고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 심상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하
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어떻게 답해주
시는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받아
적는 것이다.

퍼킨스의 저작은 교황주의와의 논
쟁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로마가
톨릭이 교황의 말을 성경의 가르침보
다 권위 있게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
님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
통과 성례로 그 의를 사려고 하는 문
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진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고 인
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
수로부터 보호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과 관용의 종
교로 변장하여, 얼마나 많은 경우 진
리로 성도를 보호하고 세상을 책망
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있는지 반성
하게 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당
시 청교에게 달콤한 가르침이 아니었
다. 그들의 종교 체제에 관한 비판이
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에 관한 배타적 선언이었다. 예수
님은 분명 화평이 아니라 겹을 주러



책 발간을 기념해 진행된 컨퍼런스 강연자들. ©청목회

오셨다(마 10:34). 우리는 성령의 겹
을 적실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청교도의 글이 이렇게 주목을 받
고 사랑을 얻는 것일까? 모든 그리스
도인의 강한 갈망을 담고 있기 때문
이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의 삶 속
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
며 오래 묵상하는 즐거움을 모든 그
리스도인은 갈망한다. 그들에게 헤아
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사랑
의 하나님을 영혼 깊이 알기 원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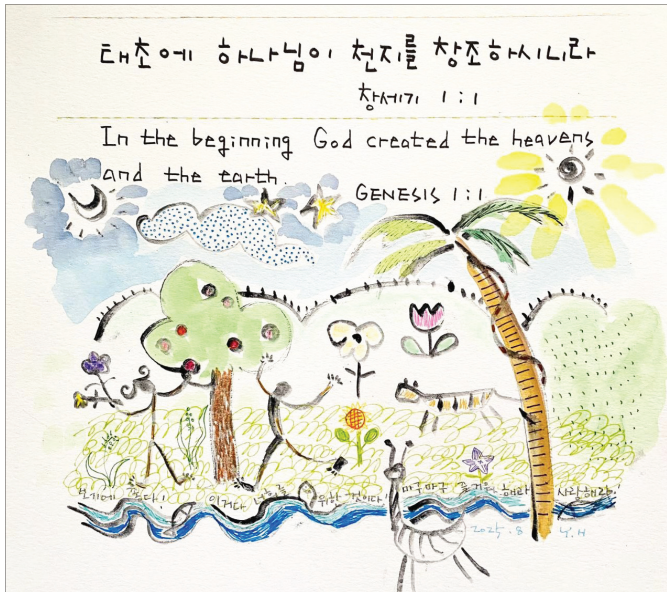
그러나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
런 우리에게 청교도의 글을 읽는 시

간은 아주 잠시나마 갈망을 채우는
안식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그들처
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
씀을 종이 읊조리게 되기를 더욱 갈
급하게 한다.

도서출판 새언약에서 정말 귀한 프
로젝트를 시작한 것에 감사하며, 이
시리즈를 읽는 모든 독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 가
운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
님 아버지를 아는 기쁨을 누리며 전
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
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吟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025 NICHÉ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언론매체의 역할

일제시대, 기독교 미술 계몽 앞장섰던 ‘뜻밖의’ 단체

이 시기 기독교 미술은 드물어
인재·장소·시스템 환경 조건과
신앙적 예술가 배출 시간 부족
일간지들이 밀레, 고흐, 루오,
밀레이 등 신앙 작품 계속 소개
기독교 학교들 미래 인재 양성

구일제 침략으로 1905년 일본제국과 보호 조약을 맺고 급기야 1910년에 강제병합이 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후 우리 역사는 1945년 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해방의 그날을 기다리며 엄혹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이 시기에 크리스천 예술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위축 국면을 맞았다. 그런 중에서도 개신교 작가로는 김은호가 예수의 부활을 주제로 한 작품을, 청년 박수근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토속적인 농촌 그림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 시기에 ‘기독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작가는 있어도, ‘기독교 미술’을 작업의 본령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추진한 작가는 흔치 않다. 이는 당시 미술계가 분화될 만큼 일정한 궤도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예술 활동의 부진은 일제의 교회 탄압과 맞물려 있겠지만, 그 원인을 불충분한 제도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 미술문화가 정착하려면 ‘인재·장소·시스템’ 등 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재’는 전문가 양성 기관인 대학 코스가 필수적이고, ‘장소’는 갤러리나 미술관 등 작품을 보여줄 물리적 공간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스템’은 작가를 후원해줄 개인이나 단체 또는 유통기구를 말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를 충족시킬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기독교 미술이 담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요인을 든다면, 역시 인재 양성을

들 수 있다. 한 명의 미술가를 키우려면 수십 년이 요구된다. 게다가 신앙을 지닌 예술가를 배출하려면 더욱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작가가 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내에는 미술대학이 전무해 화가 지망생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만 했다.

이런 와중에 언론의 역할은 막중한 것이었다. 흥미롭게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닌 작가들에 관한 소개가 꾸준히 이어졌다. 근대 미술을 밝혀준 장 프랑수아 밀레(Jean-Francois Millet, 1814-1875),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83-1890), 조르주 루오(Georges Henri Rouault, 1871-1958), 존 에버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 1829-1896) 같은 작가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1920년대 ‘회화에 대한 일고찰(동아일보, 1924. 11. 17)’이란 기사에는 밀레(1814-1875)를 바랍직한 예술가상으로 손꼽았다. 송순일은 화관을 들고 있는 미인도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부르고 길가에 쓰러진 걸인의 추태를 ‘추한 그림’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오해라면서, 밀레의 ‘저녁 기도’는 힘든 노동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부의 모습을 진실하게 묘출한 작품으로 평가하며 “외형의 미가 아무리 곱다 해도 그 내면의 진리를 현출(現出)한다고는 못할 것이다. 추를 가리어 덮은 외형의 미보다는 추 그 자체에서 진이라는 미점(美點)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인과 여성(동아일보, 1930. 9. 4)’에서는 밀레의 진실성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준다. “그는 경건으로 일생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 그는 할머니의 경건한 신앙의 감화를 받아 아름답고 순결한 그 마음을 통하여 마침내 세상의 눈을 뜨게 할 만한 대결작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동경미술학교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김용준도 ‘향토색’을 논의하면서 밀레에 주목했다.



▲동아일보에 실린 장 프랑수아 밀레의 ‘양치는 여인’ 도판(동아 1931. 1. 1).

밀레 같은 사람은 선, 색, 기교보다 먼저 앞서는 문제는 전원의 사상, 대지의 교훈, 종교의 세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려 했다(김용준, ‘회화에 나타나는 향토색의 음미’, 동아일보, 1936. 5. 5)며 그를 ‘위대한 전원의 사상가’로 불렀다.

밀레의 예술의



▲장 프랑수아 밀레, 양치는 여인, 1863,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본질을 기독교 신앙에서 찾은 관점은 김주경의 ‘신인 율화의 만종(동아일보, 1937. 11. 7)’에서 발견된다. “그는 선대서부터 내려온 청백(淸白)한 교양을 받았고 동시에 전 가족이 기독교의 모범 속 신자요 또 자기도 그러하였으므로 인생은 이마에 땀을 흘림으로써 생존함이 아담의 영원한 숙명이요 순응함은 인생의 자연이라고 하는 기독교리적 자연주의를 갖게 된 것도 자연스런 일이었다.”

밀레에 대한 고조된 관심은 동아일보 새해 첫 호에 발간한 지면을 밀레의 ‘양치는 여인(동아일보, 1931. 1. 1)’으로 장식했던 데서도 찾아진다. 그 기사에서는 농부들의 소박한 삶에 눈길을 주었던 바르비종 화가 밀레의 ‘농인(農人) 화가로서의 순일한 화인(畵因)과 특수한 수법’에 주목하였다.

F. 밀레에 대한 팬덤 때문인지, 19세기 영국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의 <눈먼 소녀>를 ‘프랑스의 농촌을 그린(조선일보, 1930. 2. 20)’ 밀레의 것으로 소개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눈먼 소녀>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등장한 라파엘 전파(Pre-Raphaelists)의 일원인 밀레이의 것이었다.

한편 조르주 루오(1871-1958)에 대해서는 생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국내에서 사랑을 받았고, 그를 따르는 미술인들도 목격할 수 있다. ‘근자의 루오(조선일보, 1940. 7. 5)’에서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데도 변함이 없다. 행상인, 곡마단, 기수, 댄서 등에 대한 그의 기호도 변함이 없다. … 기교가 힘차고 찬란하게 독창의 경지를 개척해가고 있다.”

국내 작가 중에는 조르주 루오를 따르는 화가가 유독 많았다. 가령 격렬한 색감과 필

치로 인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한 이중섭을 ‘동방의 루오’로 불렀으며, 박고석·황염수 등도 루오 작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선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가 1930년 12월부터 40회에 걸쳐 구미의 작가들을 소개한 ‘근대 태서미술순례’ 연재 중 ‘반 고흐(일부 기사에서는 콜오, 고고흐 등으로 표기)’에선 고흐의 가족, 미술상이 된 이야기, 런던 교회학교 교사, 신학교 준비, 보리나주 탄광 선교, 화가로 전향 등 그의 생애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그의 전생애에 대대한 의미를 주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참을 수 없는 욕구로서 … 선을 사랑하고 참됨을 구하였든 도덕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미의 동경자였다”(조선일보, 1930. 12. 8)고 기술하였다.

기고자는 밀레, 렘브란트, 들라크루아, 도미에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밀레의 영향이 컸다는 진단도 잊지 않았다.

구한말 선교사들의 문서를 통한 기독교 예술의 소개가 있었다면, 일제강점기에서는 매스컴을 통한 기독교자가 소개와 기독교학교에서의 신문화 교육이 진행됐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일간지를 통해 명화를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유럽의 기독교 미술이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전해졌다.

소수의 작가들의 활동을 빼놓는다면 예술적 결실은 미미했지만, 한편으로 이 시기는 내일에 대비하여 역량을 비축하는 시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 속에서 김은호의 눈부신 활동과 후진양성,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작품들, 그리고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미술의 계몽 등 구한말과는 약간 다른 동향이 포착된다.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제17회 선교와 이웃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

초가을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참가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찬양제 출연팀

☆남가주장로성가단 (지휘: 김 정 대)

☆한인로고스 교회 (지휘: 이 흥 우)

☆실비치사랑의 교회 (지휘: 송 종 현)

☆무궁화여성합창단 (지휘: 지 경)

☆나성한미교회 (지휘: 이 준 실)

☆은혜찬양단 (지휘: 지 경)

☆미주여성코랄 (지휘: 오 성 애)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단 (지휘: 김 정 대)

☆소프라노 (김 시 연)

☆테너 (오 위 영)

■일시: 2025년 9월 2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나성한미교회 T.(626)444-0058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문의: (562)972-4548 (909)319-2158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이득표 장로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정치권도 “손현보 목사 구속, 자유 위기이자 기독교 탄압”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정치권과 인권운동가들도 향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날인 8일 SNS에 “검찰이 세계로교회 손호보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종교 탄압”이라며 “국제사회 지도자들조차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극동방송(김정환 목사), 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등 종교단체를 향한 무차별적 압박을 두고 ‘숙청’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검찰을 앞세워 억지로 혐의를 부풀려 손해보는 목사를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권력의 칼날로 억누르는 일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결국 종교마저 길들이려는 정권의 본심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종교에 대한 권력의 폭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적 폭주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인권유린과 길들이기식 구속영장을 단호히 기각해야 한다. 저 또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신앙,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9월 8일 손현보 목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두하던 모습.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마지막까지 대결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9일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다"며 "언론에 따르면 손 목사가 구속된 혐의는 교회 예배 자리에서 정성운 부산시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 정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갖고 '우와 후보를 찍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 대선을 앞둔 지난 5-6월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한 혐의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혹시 언론이 모르는 숨은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다"며 "저는 누구를 비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손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비하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사람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검경과 사법부가 권력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변호사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한동훈 전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 “아침에 뉴스를 보며 이런 혐의로 구속이 말이 되는가 싶었다”며 “모수 세력이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한다. 검찰은 사라지고 목사는 평소 같으면 구속되지 않을 사유로 구속된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라져 가고 있는데, 분열되어 싸우는 현실이 한가롭게 느껴진다”고 썼다. 박수영 의원도 “매주 주일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게 정상인가”라는 포스팅을 게재했다. 국민의힘 기독인회(회장 윤상현 의원)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8일 “이미 공개된 발언과 동영상 등으

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목회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친 과잉 조치이고, 상식과 법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독교인회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의 한국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종교의 자유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시기에 순회보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종교 자유를 제약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심각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와 정치가 모두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존립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사안은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사법당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제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하고, 정부 또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변호사이자 부산이 지역구인 김미애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손해보험회사에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주요 업무인 보험금 지급에 있어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명, 조국 등 굵직한 정치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도주 우려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을 판례를 냈다”며 “왜 순회보 목사님께만 예외가 적용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종교 탄압이고 형평성의 파괴이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마저 짓밟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박지현 씨도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은 대한민국 자유 위기와 기독교 탄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기독교를 겨냥한 종교 박해이고, 나아가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라고 총평했다.

박지현 운동가는 “북한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라났다. 그러나 북한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김씨 악마들은 종교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주체사상이라는 거짓 종교를 세워, 주민 모두가 자신들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일성은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려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성경을 끼고 교회에 가라’며,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면서 속으로 교회를 허무는 전략을 선했다”며 “한국 교회가 무너질 때, 한국 사회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김일성이 잘 알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윤준 기자

이윤준 기자

교회언론회 “기독교 핍박보다 바른 정치 힘쓰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교회회를 적으로 돌려 정권에 유익이 되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보다 바른 정치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최근 목회자들에게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교회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헌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세계 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세계침례교단 회장을 지냈고,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이제는 '특검'에서 출석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왜 역대 정권에서 하지
않던 일들이 새 정권에서는 연속
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교

회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정권은 교회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이새명 정부 들어서는 해외에서 우려하는데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와 인물들에게 참고인이라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정권이 종교를 적으로 돌리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옳아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할 때, 정권의 몰락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선거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 선거법에 저촉된다 고 하여도, 굳이 헌적 목사를 구속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또 무 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전권을 휘두르는 특검이 90이 넘는 원로목 사를 특검에 출두시켜 얻으려는 것 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법조계에서도 과거의 정권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종교인들이 설령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국가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양심에 의한 것이지, 특정 정치를 옹호·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도 정권과 사법당국이 종교와 종교인을 함부로 대할 때, 결국은 정권이 막대한 부담만 떠안게 될 것”이라며 “헌법 제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원칙을 말하지 않아도, 새 정부가 보이고 있는 ‘종교관’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정치나 권력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권력 쟁취가 목적이겠으나,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신(神)에 의한 신성한 계시와 말씀을 따라,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 대하여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그것은 타협이나 명령이나 억압으로 잠재울 수 없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종교에서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작금에 벌어지는 행태는 종교 핍박을 통해, 오히려 종교와 종교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CUCKOO www.Cuckooo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부쿠밥솔,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A/S 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주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했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생님, 저는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를 구독한 지 일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을 혼자서만 보지만 하다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 봅니다. 제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애 둘을 키우고 살면서 매일을 로지스틱 컴퍼니에서 하루에 10시간 켜를 일하며 성실히 살아 왔습니다. 덕분에 애들 모두 이제는 결혼을 해서 성실히 걱정 없이 살고 있고, 저도 하나니깐 은혜로 아직까지 몸 아픈데 한 곳 없고, 이제는 은퇴를 6개월 앞둔 나이가 되서 평생 하고 싶었던 전도사역을 공부하며 조금씩 뛰고 있습니다. 나이는 올 해로 64세입니다. 애들 키우면서 한번도 제대로 된 저축도 못했고, 먹고 사는 데 정신이 없었는데 그나마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회사가 부었던 401k가 조금 있다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네 월급에서 얼마큼 넣었는지도 몰랐고 그것 때문에 세금을 혜택 받아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 401k에 돈이 22만 불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생각지 못한 큰 돈이고 이 돈을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생계에 기대로 부족지만 걱정도 됩니다. 전도사역을 계획하고 싶은 저에게 이 22만불을 재정상담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22만불을 가지고 은퇴한다는 것을 안 이후로 자꾸 이 돈생각과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써 이제와서 돈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고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제 스스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 22만불은 큰 돈인데 이 갈등되는 두 가지 마음에 문선영씨에게 연락드려 봅니다.

생년월일 / 은퇴연월 / 리빙비네어 / 401K 보유액 / 학자금 / 영세층분 / 상속

저는 돈을 섬기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무엇보다 돈이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더 나아가 배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 만큼 귀하게 여기고 재정전문가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오늘은 짧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요,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헌신하며 복종,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질문 해보십시오. 401k에 22만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그 돈에 헌신하며 복종하며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 401k가 생긴 이후로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나요? 분명 아닐 겁니다. 다만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자녀들과 의논을 하는 것처럼, 직장 내 동료들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고 풀어나가는 것처럼, 지금 401k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플랜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돈을 섬기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무엇보다 돈이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더 나아가 배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 만큼 귀하게 여기고 재정전문가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오늘은 짧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요,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헌신하며 복종,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질문 해보십시오. 401k에 22만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그 돈에 헌신하며 복종하며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 401k가 생긴 이후로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나요? 분명 아닐 겁니다. 다만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자녀들과 의논을 하는 것처럼, 직장 내 동료들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고 풀어나가는 것처럼, 지금 401k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플랜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력 / 신뢰 /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영양교육 / 은퇴계획 / 리빙비네어 / 401K 보유액 / 학자금 / 영세층분 / 상속



문선영의 머니토크
아름다운 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분이 미래에 대한 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리빙비네어를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 최초 / 미국 최고, 미국 유일의 재정방송 리빙비네어를 문선영의 머니토크(리빙비네어 AM105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로 찾아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 내 혼자서 잘 할수있나?"

"그라몬!
누구 아들인데!"

미국 LA 공연



조혜련 | 조지환 | 정지환 | 유민정 | 엄대 | 이서주 | 김연수

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
downeytheatre.org

Sunday
10.12 — 7pm

Monday
10.13 — 2pm, 7pm

Ticket
\$50 | \$60

(213) 357-1565
(562) 766-9494 (text)

주최
주관

**LOVING
FORSHIP**

